

“바쁜 걸음을 멈추고 잠시 돌아본다”

(주)고감도 안향자 대표

얼마 전 업무에 관련하여 후배 디자이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통화를 하고 일상의 대화로 화제가 바뀌었다.

오랜만이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주부로서,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해 낸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등의 그간 나누지 못했던 서로의 속 내를 털어 놓았다. 그러던 후배가 갑자기 우리 사무실의 한 디자이너 이름을 대고는 잘 있느냐며 그의 안부를 물어온다. 순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며 궁금한 마음으로 되물었다. “어머! 선배. 그 친구 내가 고감도에 심어 놓았잖아요. 잊었었구나?” 하며 까르르 웃어 댄다. 그랬다. 내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가 들어와 디자인을 시작한지 벌써 칠 년이 넘었다. 지금은 어엿하게 사무실에서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내고 있는 디자이너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약속 시간을 정한 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마음으로 통화를 끝냈다.

잠시 책상 앞에서 초점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책꽂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시작으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본다. 언젠가 고전무용을 하시는 교수님께서 손에 들려주셨던 부드러운 선들로 이어진 한지로 만든 부채, 곱고 단아한 한복의 교수님 모습이 그려진다. 아이가 어릴 때 경복궁에서 촬영한 한여름 가족사진, 자주 읽어보려는 마음으로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었지만 여전히 읽혀지지 못하고 꽃혀진 채로 책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인연을 맺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떠올려 본다.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만들어진 인연이 아니었다. 지금의 내가 있게 한 많은 사람들, 그 속에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워진 사람, 지인들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 오랫동안 못 보며 지내다 만나게 된 소중한 친구 등 어느 한 사람도 주변에 놓여있는 작은 물건 하나라도 그들이 우연히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지금이다.

‘그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한 사람씩 다가오는 모습들로 가슴속이 채워졌다. 잊고 사는 것이 이렇게 많았구나. 잊고 지내던 인연들과 오랜 벗들과의 대화를 지금이라도 시작 해야겠다. 서랍을 열어 손 때 묻은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들어 펼쳐 본다.

